영어어문교육 *제 27권* 4호 2021년 겨울
https://doi.org/10.35828/etak.2021.27.4.35

코로나 19 상황에서의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

남은희[*]
(을지대학교)
성명희[**]
(을지대학교)

Nam, Eun-Hee & Seong, Myeong-Hee (2021). A study on Korean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their online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under COVID-19 pandemic.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7*(4), 35-56.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characteristics of online classes under the COVID-19 pandemic and was designed to find out the responses of students to online classes conducted in 2021. Ahead of the return from online classes to face-to-face classes, it aims to reflect on student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online classes and present discussions on post-COVID-19 classes by examining the degree of satisfaction of students in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In order to achieve this, the research was implemented for 15 weeks with 394 university students. The research questions set up for the research purpose are as follows: in online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what is the interaction 1) between learners and instructors?, 2) between the learner and the teaching content?, 3) between learners?, 4) between the learner and the system? and finally, what is the satisfaction level with English reading and writing learning? On the whole, students responded positively to online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but there was a high negative perception of the communication aspect. Base on the results, some suggestions are made, and discussion points for 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es post COVID-19 were proposed.

[COVID-19 pandemic/English reading and writing class/online teaching and learning, 코로나 19 세계적 전염병/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온라인 교수 학습]

---

[*] 제1저자
[**] 교신저자

Ⅰ. 서론

코로나 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음에 따라 기대하였던 대면 강의가 비대면 강의로 전환되고 교수자와 학생들은 또 다시 강의실이 아닌 컴퓨터 앞에 자리하여야 했다. 2020년도에 이어 2년 연속 비대면 수업이 계속되자, 초기에는 온라인으로도 수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행이라 여겼던 대학은 이전보다 향상된 수업, 보다 교과의 목표에 맞는 수업을 해 주기를 바라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요구와는 다른 차원으로 교수자 자신들도 초기의 당혹감과 혼란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수업을 효과적으로 구성하고 또 전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오프라인 강좌 수는 598,813개, 온라인 강좌 수는 5,606개로 온라인 수업은 전체 수업 중 1%였다(교육부, 2020b). 그러나 코로나 19가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되며 2020년 2월에는 교육부에서 긴박하게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대면 수업은 전면 금지되었다. 온라인 개학이 발표되면서 초, 중, 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약 30만 명에 가까운 전국 대학생 역시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했다(손혜숙 & 전설아, 2021). 철저한 계획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학사 운영은 불가피하게 변경되고 일시적 대안에 의존한 온라인 개학은 모든 교과목에서 기존 등교 개학의 교실 수업 상황에서 수행하는 교육과정 목표 달성 수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이보경, 2020). 이왕구(2021)는 2020년 코로나 19 발생 이후 대학생들의 일상생활 변화를 분석했던 홍성희 계명대 소비자정보학과 교수의 말을 인용해 학업 성취도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수업 부실의 우려와,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불만족과는 별개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의 부정적 측면들을 극복하며 빠르게 적응해 가는 반면, 교수자들은 수업 제작과 수업 운영에 대해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들로 고군분투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김지원, 박영신, 김경이, & 양길석, 2021). 코로나 상황 하에서 이어지는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연구물들은 생소한 환경 속에서도 교육의 본질을 우려하는 교수자들의 또 다른 고군분투의 한 면일 것이다.

Hodges, Moore, Lockee, Trust와 Bond(2020)는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의 온라인 수업을 ERT(emergency remote teaching)이라 지칭하며 근본적으로 기존의 온라인 학습과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존의 정규 학교 체제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쌍철 & 김정아, 2018)이라면, 코로나 19 하에서의 온라인 수업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다. 최형미와 이동국(2020)은 코로나 19로 인해 전면 시행되고 있는 온라인 수업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수업과는 다른 네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언급한다. 그들이 제시한 특징들은 첫째,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수업에서 교수자와 학생은 충분한 테크놀로지 소양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교수 내

용, 방법, 테크놀로지를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실재감을 높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온라인 수업을 위한 풍부한 콘텐츠와 안정적인 시스템이 요구된다 등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 19 상황 하의 온라인 수업이 갖는 특징들에 주목하고 이 기간 실시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알아 보고자 한다. 이는 코로나 19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전염병, 천재지변 기상이변 등과 같은 이상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수자와 학교는 이에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Hodges 외 4인(2020)의 조언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다. 불가피하게 실시된 온라인 수업에서 다시 대면 수업으로의 회귀를 앞 둔 시점에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인식을 반추하고,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학생들의 만족의 정도를 살펴보아 코로나 이후 대학 교양 영어 수업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1)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2) 학습자와 교수 내용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3)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4) 학습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5) 영어 읽기 학습과 쓰기 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Ⅱ. 선행 연구

코로나 19 펜데믹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시행된 온라인 교육과 관련하여 관심과 책임을 갖고 그 시행에 대한 연구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선행 연구들은 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애요인이나 문제점들을, 학습자의 측면과 교수자의 측면, 제도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손혜숙 & 전설아, 2021). 이들 중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교육 현장, 연구 대상 등- 연구물들은 제외하고 대학에서 시행된 온라인 교수 학습과 관련한 연구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인용한 연구들은 2020년과 2021년의 발표로 구분하였으며 대학 온라인 수업의 초기부터 이후의 연구 동향을 알 수 있다. 기간 내에서는 가나다 순으로 제시하였다.

2020년도에 김양희, 신유선과 정영경(2020)은 펜데믹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와 관련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들은 학습자 요인, 교수자 요인, 시스템 요인, 영어학습효과 등을 측정하여 네 가지 요인 모두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덧붙여 교수자의 즉각적인

피드백과 상호작용 개선, 시험과 평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과 과제 량 조절, 조별 활동 등은 지양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보경(2020)은 온라인 방식의 대학 교양 영어 수업 사례와 학습자 반응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영상의 소리 불량, 과제 제출과 관련한 부담감 및 불안함, 빠른 강의 진행 속도, 자기 주도 학습의 어려움, 소통의 부재 등이 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문제점으로, 반복재생학습을 통한 학습효과의 증대, 효율적 강의 구성, 다양한 교재 및 자료의 효율적 제시를 통한 학습 효과 증대 등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향기(2020)는 온라인 수업의 자기주도 학습능력 향상과 온라인 평가에 대한 학습자들의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이에 학생들은 전면적인 온라인 수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 형성, 온라인 시험에 대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반복학습이 가능하며 시간 제약이 없다는 점은 장점이나 교수자와 상호작용이 어려우며 집중이 어려운 점은 단점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희정, 김애림과 주하나(2020)는 대학에서 진행된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여 코로나 19 사태에서의 대학생의 온라인 수업 경험에 관한 다섯 개의 인식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들이 밝힌 다섯 개 유형은, 온라인 수업 긍정적 수용 형(1유형), 등록금 반환 강조 형(2유형), 과제 부담 형(3유형), 캠퍼스 선망 형(4유형), 자기주도 학습 형(5유형)이다.

최정선, 권미경과 최은경(2020)은 교수자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오류, 필기와 자료 공유의 불편함, 발표와 토론, 과제 피드백에서 원활하지 않은 점, 상호작용, 학생의 동기유발, 참여 등의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을 보였으며, 이러한 문제는 사전 교육을 통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교수법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최윤정과 지난영(2020)은 비대면 수업의 상호작용과 수업 방식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은 교수자나 다른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시간 수업 수강생들의 경우, 교수자나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낮을수록 수업 만족도가 큰 차이로 떨어지고 상호작용이 높으면 수업 만족도가 크게 오르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반면, 녹화 수업을 들은 학습자들은 차이가 적거나 거의 없었다고 말하였다.

한송이와 이가영(2020)은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 인식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이에 교수자-학습자, 학습자-학습자의 상호작용 증가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교수자의 역할은 다양해지지만,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방식이 교수자가 설정한 교육목표를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2021년 들어 김지원, 박영신, 김경이와 양길석(2021)은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및 경험을 분석하였다.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교수와 학생은 온라인 수업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는 유사한 인식 경

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학생보다는 교수가 더 크게 인식하고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부남(2021)은 실시간과 비 실시간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된 대학의 의사소통 중심 영어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와 인식을 분석하였다. 학생들은 비디오 강의와 줌(Zoom) 실시간 강의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학습의 편리성에 만족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보다 활발한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원하고 있으며, 새로워지는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디지털 학습의 적극적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손혜숙과 전설아(2021)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방법으로 블렌디드 러닝을 제안하고, 실제 교육에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결과는 온라인 수업의 한계였던 의사소통 문제의 극복이 가능하였으며, 오프라인 면대면 학습 환경에서는 한정적이었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온라인 공간의 특수성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연주와 임경수(2021)는 신입생의 효과적인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들은 본 프로그램이 신입생의 변화된 학업 환경과 인간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어 코로나 19 상황에서 신입생의 캠퍼스 적응에 기여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멘토의 선발과 양성교육, 멘토링 활동의 구조화, 소통 체계를 통한 모니터링, 성과 공유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임정완(2021)은 시스템, 교수자, 학습자, 그리고 학습 효과를 요인으로 두고 대학교 온라인 영어 수업 방식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이 네 가지 요인은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학습효과, 교수자, 시스템 요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자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교수자, 시스템 요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학습효과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시스템 요인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교수자 요인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상관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황요한과 김창수(2021)는 비대면 온라인 강의에서 대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만족도, 선호도, 수업의 효과, 수행 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복습의 용이함, 시공간을 초월한 개인화된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의 향상 등은 장점이나,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서는 수업 자체의 질을 높이는 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학생 관리, 수업 진도 안내, 시청 방법 안내 등에 대한 외부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Irvin과 Park(2021)은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대학생들의 경험과 관련된 질적 연구의 사례들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은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의 활용으로 더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교수자들이 그들의 언어적 소통이 증가하고 향상되도록 독려해 줄 것을 원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인 노력과 함께 교수자와 그리고 학급 동료들과 보다 많은 상호작용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Kim과 Seong(2021)은 동영상 촬영을 통한 온라인 대학 교양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의 학습 행태와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를 하였다. 학생들은 수강 장소와 사용한 방법은 비슷했지만, 동영상을 보는 시간, 빈도, 기간 등은 다양하였으며, 학습 과제 제출에 드는 시간, 학과 친구들과 의사소통 할 수 없는 점, 사용되는 다양한 플랫폼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기술적인 점들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4년제 A 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394명이다. 이들은 교양 필수 과목으로서 영어 읽기와 쓰기를 수강 신청하였으며, 영어 읽기와 쓰기 과목이 필수 과목이므로 이들 외에도 재수강 신청한 상급 학년의 학생들이 있었으나 연구 결과의 동질성 확보를 위하여 이들은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전공은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위생, 안경광학, 응급구조, 의료공학, 미용화장품과학, 의료경영, 장례지도, 유아교육, 의료IT, 의료홍보디자인, 식품영양, 식품산업외식, 보건환경안전, 간호 그리고 아동학이었다. 이 중 남학생이 213명(54.1%), 여학생은 181명(46.9%)이며 연구에 참여한 1학년 학생들의 성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 대상의 분포

성별	%	*n*
남	54.1	213
여	46.9	181
합계	100	394

2. 연구 기간

본 연구는 2021년 1학기, 한 학기 동안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15주로 이루어진 해당 학기에서 13주간의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진행된 2주는 등교하여 대면 시험에 임하였다.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설문은 15주차에 실시된 기말고사가 끝난 뒤 진행되었으며, 설문지는 배부 20분이 지난 뒤 회수하였다.

3. 연구 환경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해 본 연구의 환경이 되는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 역시, 비대면으로 운영하였다. 다만 2020년도와 달리 학교 측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25% 이상은 소통이 가능한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동영상 촬영 수업에는 강의 주체인 교수자의 얼굴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는 비 대면 온라인 수업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소통의 한계를 다소나마 해소하려는 측면으로, 본 연구자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대면 수업으로 치르며, 시험 직전 주에는 시험에 대한 공지와 학습 내용에 대한 질의 응답을 위하여 2 주간의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구체적으로, 1주부터 6주, 9주부터 13주까지는 동영상 촬영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 7주차와 14주차에는 Google Meet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그리고 8주차와 15주차에는 대면 시험을 진행하였다.

동영상 수업의 경우는 교육부(2020a)가 배포한 온라인 수업의 유형에서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과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의 혼합형으로 진행하였다. 즉, 50분 1차시 수업이 25분 이상의 1회분 동영상과 강의 내용과 관련한 25분 분량의 과제 제출로 인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본 수업은 한 주 2차시 수업이므로 25분 이상 분량의 2회분 동영상을 LMS에 업로드하여 수강하도록 하고, 25분을 인정하는 대체 과제 두 종류를 LMS 과제 란에 업로드하여 동영상 수업 참여와 과제가 모두 업로드 되었을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였다. Google Meet로 진행한 실시간 온라인 수업은 대면 수업과 동일하게 50분 수업 2차시로 진행하였다.

본 수업 영어 읽기와 쓰기는 교양 공통 과목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항을 교과 목표로 두고 있다. 첫째, 중급수준의 학문적인 글을 읽고 이해 할 수 있다. 둘째, 중급수준의 학문적인 글을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쓸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영문 읽기를 통해 학문적 소양을 넓힌다. 넷째, 다양한 영문 쓰기를 통해 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소통 능력을 배양한다. 담당하는 모든 교수자들은 영어 읽기와 쓰기의 공동 강의 계획에 따라 동일한 교재와 동일한 평가 기준을 따른다. 교재의 각 단원은 읽기 전(어휘 학습)과 읽기 중(본문 읽기), 읽기 후(문법과 글쓰기)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수자들은 수업의 효과를 위해 개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가할 수 있고, 수업 중에 자유롭게 읽고 쓰기를 위한 교수 활동을 하게 된다. 덧붙여 본 수업은 교재 내용 외에 필수적으로 추가적인 영어 쓰기 과제를 부과하여 평가에 포함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는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한정된 강의 시간을 감안한 것으로 강의 계획서에 명시하고 학생들에게는 학기 초에 공지하며 쓰기 과제 역시 개별 교수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부과할 수 있다. 본 연구자의 경우는 교재 내 단원 중 하나를 골라 그 제목을 주제로 하여 A4 용지 2/3 페이지 이상 분량의 에세이를 작성하여 연구자 개인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도록 하였다.

LMS를 통한 제출을 지양한 것은 영어 쓰기 과제가 개별적 학습임을 고려한 것이다.

4. 연구 도구

1)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 도구는 설문지이다. 설문지 상단에는 학생의 배경을 파악하고자 기초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아래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기초 문항은 학생들의 성별, 학년, 학과 등을 묻는 3개 문항이며,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준비한 문항들은 그 하단에 제시하였다.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모두 30 개이다. 이들 30개 문항은 ①매우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등의 5가지 척도로 응답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들은 Paechter, Maier와 Macher(2010)가 제시한 온라인 교육에 만족을 주는 요인에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그들은 온라인교육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구조적 요인, 과정적 요인, 그리고 성과적 측면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구체적으로, 온라인교육에서의 내용과 수업 설계, 그리고 학습관리시스템은 구조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그리고 학습자 개인의 학습과정은 과정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학습 결과 및 수업의 만족도는 성과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는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와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지를 다음의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온라인 수업진행에서의 학습자와 교수 내용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 둘째, 학습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적 측면, 셋째,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 그리고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네 번째 항목으로 두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이 교과 목표 성취에 적절한가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의 정도를 알아 보기 위한 항목을 첨가하였다. 다섯 가지 항목에는 인식, 혹은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설문지의 구성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설문지 구성

항목	문항 번호	문항 수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적 측면	1, 2, 3, 4, 5, 6	6
학습자와 교수 내용 간 상호작용적 측면	7, 8, 9, 10, 11, 12, 13, 14, 15	9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적 측면	16, 17, 18, 19, 20	5
학습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적 측면	21, 22, 23, 24, 25	5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에 대한 만족 측면	26, 27, 28, 29, 30	5
합		30

2) 신뢰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측정한 설문지가 연구 도구로서 믿을 만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를 분석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 검증은 크론바흐 계수(Chronbach's Alpha)를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30문항 전체의 신뢰도는 .952로 0.7을 훨씬 상회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는 측정도구로서 매우 신뢰할 만하다. 아래의 표 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신뢰 계수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3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설문지 신뢰도

문항 수	*M*	*SD*	Chronbach's Alpha
30	.043	.647	0.952

Ⅳ. 결과 및 논의

1.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적 측면

교수자는 수업을 주도하며 완성하는 주체이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상호작용으로(김태웅, 2010), 학생과 교수자, 이 두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은 수업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한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나타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1)	교수자는 온라인 수업에서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의 목표를 이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1 (0.3)	0 (0)	18 (4.5)	149 (37.8)	226 (57.4)	4.5
(2)	교수자는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 관련한 사항들을 공지사항에 올려 놓았다.	1 (0.3)	1 (0.3)	4 (1.0)	101 (25.6)	287 (72.8)	4.7
(3)	나는 공지사항에 올려 있는 읽기와 쓰기 수업의 공지 사항을 자주 확인하였다.	2 (0.5)	4 (1.0)	38 (9.6)	118 (30.0)	232 (58.9)	4.5
(4)	나는 수업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교수자에게 (문자, 전화, 카톡, 메일, LMS상 쪽지나 Q&A 등으로) 질문하였다.	7 (1.8)	40 (10.2)	105 (26.6)	107 (27.1)	135 (34.3)	3.8
(5)	질문에 대해 교수자는 적절한 답을 제공하였다.	1 (0.3)	2 (0.5)	51 (12.9)	139 (35.3)	201 (51.0)	4.4
(6)	교수자는 과제에 대해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1 (0.3)	3 (0.8)	54 (13.7)	122 (30.9)	214 (54.3)	4.4

위의 표 4에서 보듯,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이다. 대부분의 문항이 평균 4.5에서 4.7정도를 보이는 가운데, '교수자는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 관련한 사항들을 공지사항에 올려 놓았다'라는 문항은 94%의 학생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나는 공지사항에 올려 있는 읽기와 쓰기 수업의 공지 사항을 자주 확인하였다'라는 질문에는 89%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이 같은 결과에서 교수자와 학생간 수업에 대한 정보 소통은 양호하게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겠다. 그 외, '교수자는 온라인 수업에서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의 목표를 이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교수자는 과제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 교수자는 적절한 답을 제공하였다'는 문항에도 평균 4.5안팎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다.

주목할 것은 '나는 수업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교수자에게 질문하였다'라는 문항은 평균 3.8로서 다른 문항들 보다 낮았다. 학생들은 온라인상 질문에 대한 교수자의 응답에는 대체로 만족하나, 실제 자신들은 수업에 관한 질문은 상대적으로 적게 한다고 답한 것이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소통 방식은 문자, 전화, 카카오톡, 메일, LMS상에서의 쪽지나 Q&A 등에 한정되어 이를 사용할 적극적인 태도가 부족하면 교수자와 학생들과의 소통은 순조롭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본 문항에서도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이 12%, '보통이다'의 유보적 응답이 26.6%로 다른 문항에 비해 긍정적 인식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수업을 전개하고 관리하는 존재인 교수자가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고 존재하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실재감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Picciano, 2002). 온라인 상에서의 실재감 향상은 교수자와의 소통이며, 학생의 실재감 향상으로 의미 있는 학습을 만들기 위

해서는 학생들과의 소통이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유대감 형성으로 온라인 상황에서 발생하기 쉬운 고립감을 줄여 주는 역할로도 필요하다(LaBarbera, 2013).

2. 학습자와 교수 내용 간 상호작용

온라인 수업에서는 대면 수업에서의 교수 내용이 부적합한 경우가 많다(도재우, 2020). 그러나 실제로는 부적합할 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는 자료도 있다. 온라인 상으로 전달되는 교수 내용들은 온라인이라는 교수 방식에 적합하게 학습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고 수용되어야 교수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수업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교수 내용과 학습자의 상호작용적 측면에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보았으며 결과는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학습자와 교수 내용 간 상호작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빈도(%) ①	②	③	④	⑤	*M*
(7)	온라인 영어 읽기와 수업을 위한 교재의 내용은 적절하였다.	2 (0.5)	2 (0.5)	28 (7.1)	122 (31.0)	240 (60.9)	4.5
(8)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의 학습 분량은 적절하였다.	2 (0.5)	4 (1.0)	23 (5.9)	121 (30.7)	287 (72.8)	4.5
(9)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의 과제 분량은 적절하였다.	1 (0.3)	3 (0.8)	28 (7.1)	124 (31.4)	232 (58.9)	4.5
(10)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내용은 이해하기 용이하게 구성되었다.	1 (0.3)	1 (0.3)	28 (7.1)	124 (31.4)	135 (34.3)	4.5
(11)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은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었다.	1 (0.3)	4 (1.0)	21 (5.3)	117 (29.7)	201 (51.0)	4.6
(12)	나는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 후 필요한 어휘나 구문 등을 반복 하여 학습하였다.	3 (0.8)	20 (5.1)	78 (19.8)	138 (35.0)	214 (54.3)	4.1
(13)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이해를 돕는 다양한 기술적 방식이 동반되었다.	4 (1.0)	9 (2.3)	77 (19.5)	120 (30.5)	184 (46.7)	4.2
(14)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이해를 돕는 보충 자료가 제공되었다	3 (0.8)	8 (2.0)	63 (16.0)	112 (28.4)	208 (52.8)	4.3
(15)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제공되는 시험관련 자료들은 충분하였다.	2 (0.5)	6 (1.5)	35 (8.9)	125 (31.7)	226 (57.4)	4.4

온라인 수업의 내용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김한주, 노석준, & 유병민, 2015). 이에 더하여, 수업 내용 자체와는 다른 문제로 학습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 하는 교수 내용과의 소통에 따라 수업 성과는 달라질 것이다. 위 표 5에서 보듯, 교수 내용과 관련한 상호작용적 측면에서의 학습자들의 태도와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온라인 상으로 진행된 영어 읽기와 쓰기의 수업에서 교재의 내용과 학습 분량, 과제의 분량, 그리고 수업의 구성에 대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긍정적인 인식이 90%를 넘었다. 특히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은 이해하기 쉽게 진행되었다’라는 문항에서는 95% 정도로 거의 모든 학생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이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어 읽기와 쓰기의 교수 내용이 온라인 방식에 맞게 준비되고 적절하게 전달되어 수업에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다만 ‘나는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 후 필요한 어휘나 구문 등을 반복 학습하였다’라는 문항은 평균 4.1로 다른 문항들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온라인 수업은 학습자가 학습을 스스로 주도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학습자 스스로가 학습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능력과 학습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학습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조은순 & 남상조, 2011). 이보경(2020)이 언급한 비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 수업의 장점인 반복 재생을 통한 학습효과의 극대화 역시, 교수 내용과 학습자 자신과의 상호작용이 동반될 때 가능하다.

그 밖에,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이해를 돕는 보충 자료가 제공되었다’와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제공되는 시험 관련 자료들은 충분하였다’에서도 평균 4.3, 4.4정도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학습자와 교수 내용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때,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제공된 교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어서 온라인을 통한 교수 내용의 전달 효과는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교수 내용과 학습자 자신과의 소통 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앞서 살펴본 교수자와 학습자간의 소통 측면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게 학습자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부분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3.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

협동 학습은 학습자들 간의 긍정적인 상호 의존을 장려하여 긴장감을 줄이고 긍정적인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민찬규 & 김보경, 2006). 특히 온라인 수업은 교수자의 물리적인 부재 하에서 학습자 스스로 학습을 이어가야 하는 특수한 상황이 되므로 학습자들 간의 소통은 더욱 유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가 또 다른 학습자와 맺는 상호작용이 어떠한가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강의와 관련하여 (on-off line 등으로) 다른 학습자들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50 (12.7)	97 (24.6)	105 (26.7)	64 (16.2)	78 (19.8)	3.1
(17)	나는 다른 학습자와 과제에 관한 소통을 하였다.	65 (17.4)	92 (24.6)	94 (25.1)	58 (15.4)	65 (17.4)	2.9
(18)	짝 활동이나 집단 학습의 기회가 있었다.	129 (34.6)	140 (37.5)	68 (18.3)	15 (4.0)	21 (5.6)	2.1
(19)	나는 다른 학습자의 질의 응답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	81 (21.7)	98 (26.3)	92 (24.7)	50 (13.4)	52 (13.9)	2.7
(20)	학습자 상호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상의 공간이 있다.	65 (17.4)	104 (27.9)	91 (24.4)	51 (13.7)	62 (16.6)	2.8

위의 표 6에서 보듯,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 문항이 평균 3 아래이며,‘짝 활동이나 집단 학습의 기회가 있었다’의 경우는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긍정적 인식을 보인 학생이 10% 미만으로 극히 낮았다. 또한 ‘나는 다른 학습자의 질의 응답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학습자 상호간 소통을 위한 온라인 상의 공간이 있다’ 등의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한 학생은 30% 미만에 그쳤다. 그 외, ‘나는 다른 학습자와 과제에 관한 소통을 하였다’, ‘나는 다른 학습자의 질의 응답을 통해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에서도 역시 긍정적 반응을 보여준 학생은 30%를 약간 웃도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의 인식과 태도를 묻는 다른 항목들과는 대조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재의 LMS 안에서 학습자와 다른 학습자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는 없다. LMS 상에 마련되어 있는 쪽지 기능이나 Q&A 등은 교수자가 일방적으로 학습자들에게, 혹은 교수자와 학습자가 개인적으로 소통하는 시스템이므로 소극적이거나 소통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간과되어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 온라인 수업에서, 특히 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서는 학습자들간의 소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동료 학습자와 고립되어 실재하는 개개의 학습자들에게는 필요하고 급박한 문제를 해소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학교 측에서는 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소통 부족을 해소하고자 이번 학기에는 비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하여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한 방식의 수업을 25% 이상 실시하도록 정하였다. 이에 본 수업에서는 두 번의 대면 시험과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두 차례 시행하였다. 비록 학생들과 함께 모여 수업을 진행한다는 집단 형성에 대한 안도와 대면의 기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학생들은 교수자의 질문에 응답하거나 다른 학생들과의 의견 교환은 물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는 토론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은 다른 학

습자들과 온라인 상으로 토론하는 것에 대해 불편함과 어색함을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으며(임정훈, 1998), 그저 관심이 없거나 기본적으로는 나서지 않는 한국인의 정서 때문일 수도 있다.

학생들 간의 소통에 있어 불편함과 어색함의 해소는 학습 성과 와도 연계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 측에 LMS 상에 학습자들 간에 수업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한다. 교수자 역시 SNS를 통한 단체 학습 방을 만들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계획을 자신의 온라인 강의 수립 단계에서 마련하여 학기 초 학생들에게 안내하는 것은 학생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줄여주고, 수업에 대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어 계획한 학습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4. 학습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적 측면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도구인 LMS는 학습의 편리성과 교수자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를 높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온라인 학습의 기반이 된다(이혜정 & 김태현, 2008). 또한 실시간 온라인 학습 시스템은 생동감 있는 수업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면대면 수업 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김현주, 2020).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비대면 비 실시간 수업용으로 LMS와 온라인 실시간 대면 수업 방식으로 사용된 Google Meet를 사용하였다. 이들을 통한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학습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표 7
학습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

문항 번호	설문 내용	빈도(%) ①	②	③	④	⑤	*M*
(21)	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술적 (컴퓨터, 스마트폰, LMS 활용 능력 등) 능력은 충분하다.	4 (1.0)	13 (3.5)	41 (11.0)	122 (32.7)	78 (19.8)	4.3
(22)	온라인 강의의 질(동영상 플레이, 화면 끊김, 오디오 질 등)은 양호하였다.	8 (2.0)	17 (4.6)	40 (10.7)	118 (31.7)	65 (17.4)	4.3
(23)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는 가능 하였다.	9 (2.4)	18 (4.8)	72 (19.3)	125 (33.5)	21 (5.6)	4.0
(24)	LMS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12 (3.2)	24 (6.4)	90 (24.1)	111 (29.8)	52 (13.9)	3.9
(25)	온라인 강의, 과제 제출과의 출석 연계 시스템은 원활히 작동하였다.	5 (1.3)	22 (5.9)	39 (10.5)	121 (32.4)	62 (16.6)	4.2

본 항목, 학습자와 시스템간의 상호작용에는 온라인 수업 방식의 편이성과 접근성,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 학습 환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포함한다. 위의 표 7에서 보듯, 학습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문항에서 평균 4에서 4.3정도였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점은, '나는 온라인 수업을 위한 컴퓨터, 스마트폰, LMS 활용 등 기술적 능력은 충분하다' 문항에 85% 가량의 학생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로 응답한 점이다. 이는 어릴 적부터 컴퓨터가 일상이며, 이미 이전부터 휴대폰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해 온 학생들에게 대학에서의 온라인 수업을 위한 시스템 활용 기본 능력은 이미 갖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밖의 문항에서 살펴 본 온라인 시스템 작동과 운용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과 태도는 긍정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동영상 플레이, 화면 끊김, 그리고 오디오 음질 등 온라인 강의의 질은 양호하였다'와 '온라인 강의, 과제 제출과의 출석 연계 시스템은 원활히 작동하였다'는 문항에는 80% 넘는 학생들이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이 외,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는 가능 하였다'와 ' LMS 상에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다' 등에 대하여도 70% 안팎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온라인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1/3 가까운 학생이 긍정의 응답을 하지 않은 점은 고려해야 할 점이다. 임정완(2021)은 학생들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인터넷 연결의 불안정성, 학교 공유기의 와이파이 끊김 현상, 마이크의 음질 개선 등을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감안하여야 할 점은 온라인을 통한 수업은 인터넷 사용자가 처한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스템 상의 갑작스러운 오류나 네트워크의 순간적 접속불량 등과 관련한 불가피한 학습환경 발생은 온라인 수업이 갖는 한계이다. 다만, 순간적 오류를 제외한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불량한 온라인 수업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온라인 학습 방안들이 마련된다면 성공적인 온라인 수업이 될 것이다.

5. 온라인 수업에서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에 대한 만족 측면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는 온라인 수업 경험에 대한 학습자의 주관적 반응으로서, 온라인 수업의 질과 산출 결과가 학습자의 기대치를 충족하거나 넘어선 상태를 가리킨다(Spreng & Mackoy, 1996). 이에 본 연구는 산출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앞서 살펴본 온라인 수업의 4가지 측면에 더하여,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의 성과 산출을 위한 교과 자체에 대한 학습자의 만족도를 알아 보았다. 그 결과는 아래의 표 8과 같다.

표 8
온라인 수업에서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에의 만족

문항 번호	설문 내용	빈도(%)					*M*
		①	②	③	④	⑤	
(26)	온라인 수업은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유용하였다.	3 (0.8)	7 (1.9)	60 (16.1)	134 (35.9)	169 (45.2)	4.2
(27)	온라인 수업은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유용하였다.	4 (1.0)	5 (1.4)	59 (15.8)	138 (37.0)	167 (44.8)	4.2
(28)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수업은 영어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4 (1.0)	12 (3.2)	59 (15.8)	132 (35.5)	166 (44.5)	4.2
(29)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수업은 영어 학습에 흥미를 주었다.	2 (0.5)	13 (3.5)	65 (17.4)	127 (34.1)	166 (44.5)	4.2
(30)	온라인 수업은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3 (0.8)	14 (3.8)	58 (15.6)	121 (32.4)	177 (47.4)	4.2

표 8에서 보듯,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는 흥미롭게도 영어 읽기와 쓰기에 대한 다섯 가지의 문항 모두가 평균 4.2로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온라인 수업은 영어 읽기 능력 향상에 유용하였다'와 '온라인 수업은 영어 쓰기 능력 향상에 유용하였다'에서 '그러하다'와 '매우 그러하다'의 긍정적 응답은 80%를 넘었으며, 부정적 응답은 2.5% 안팎으로 매우 적었다. 또한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은 영어 학습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은 영어 학습에 흥미를 주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은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에 적합한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등의 문항에서도 긍정적인 인식이 80% 안팎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한 영어 읽기, 그리고 영어 쓰기 수업에 대해 학생들은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 하지만 본 연구는 부정적 응답에 주목하여 보고자 한다. 영어 읽기 수업의 유용성, 쓰기 수업의 유용성과 비교해 볼 때, 학습에의 동기 부여, 흥미 부여, 그리고 적합한 방식이라는 면에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상승하였다.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 온라인이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고 적합한 방식이라는 인식에는 5% 안팎의 학생이 그렇다라고 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에 만족하는가는 성공적인 수업 완성을 위해 연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는 주제이다. Spreng과 Mackoy(1996)가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와 산출의 결과를 연계하였 듯이, Palmer와 Holt(2009) 역시, 수업 만족도는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하게 하는 동력이 될 뿐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학습 성과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학생들이 보여준 온라인 진행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태도는, 그들이 대학에 입학하여 첫 학기를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대면 수업의 경험이 없는 점과 온라인 수업이 세번째 이어지고 있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학교 당국은 전년도에 빚어진 시행 착오를 해소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교수자들은 자신들의 온라인 수업 방식의 효과성과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히 준비한 노고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가 학업 성취도를 향상시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김민정(2021)은 일선 학교 교사들의 설문조사와 일부 시도교육청의 연구 결과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학력 저하를 교육부가 공식 통계를 통해 사실로 확인하였다고 보도하였다. 교육부 공식 통계로 학력 저하가 사실로 입증된 것은 처음으로, 신문은 코로나 19에 따른 등교 축소, 원격 수업 전환 등으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 학습 의욕까지 함께 떨어져 학업 성취 수준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서영일(2021)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코로나 19 여파로 인한 학력 저하가 고등학교 우수 학력 학생에게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초, 중, 고와는 달리 대학의 경우는 국가 차원의 온라인 수업에 따른 학업성취 평가가 불가능하고 대학 차원에서의 시도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온라인 수업의 만족도를 성취도라 오해하지 않고 교과목이 설정한 성과 달성과 연계하는 노력은 코로나 이후에도 이어져야 하는 연구자의 과제로 남아 있다.

V. 결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어디서든지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의 온라인 교육은 대학의 정식 강의의 목적과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부분에서 다르게 운영되어 대학의 전체 강의에 그대로 이식하기에는 무리(손혜숙 & 전설아, 2021)라는 우려가 우세하였다. 이처럼 선택적 목적 하에 실시되던 대학의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하여 선택의 여지가 없는 수업 방식으로 강권 되었다. 2020년 1학기부터 전면 비대면에서 시작하여 일부 대면 수업 허용의 변동을 거친 뒤에, 코로나와 함께 하는 네 학기를 보내는 현 시점에서는 백신 접종의 확대, 치료제 개발 임박에 따른 위드 코로나, 혹은 일상 생활로의 복귀라는 소식을 접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신현준(2021)은 10월 6일자 YTN 뉴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된 제2차 대학 교육회복위원회에 참석한 교육부총리가 10월부터 전체 대학 수업의 25%가 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학생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대면 수업 추가 확대에 대해 적극 검토를 요청하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후의 수업은 코로나 19 이전으로 동일하게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에서의 경험은 어느 정도이든, 어떠한 측면에 서든 코로나 19 이후 수업의 근저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재호(2020)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교육환경의 변화는 산업혁명과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이미 예견되어 있던 미래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실제 코로나 초기의 혼란의 시기를 지나면서 연구자들은 갑작스럽게 실시된 온

라인 수업 환경과 수업 운영에 관한 교육의 주체인 대학생들의 반응과 인식이 추후 비대면 강의 운영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김양희 외 2인, 2020). 본 연구도 코로나 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온라인 교양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알아 보고 또 그 결과를 코로나 이후 수업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온라인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서의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학습자와 교수 내용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학습자와 학습자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학습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그리고 영어 읽기와 쓰기 학습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등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결과, 학습자와 교수자 간 상호작용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는 평균 4.5에서 4.7정도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는 교수자들의 물리적 부재를 회복하려는 노력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운영한 결과로 보인다. 다만 학생들에게 수업에 대해 질문이 있을 때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LMS상 쪽지나 Q & A 등 여러 방법으로 소통하도록 하였으나 반응은 낮았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이러한 소통 부족은 학습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수업 참여, 질문 유도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으로 학습자와 교수 내용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반응은 평균 4.5안팎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온라인상으로 전달되는 영어 읽기와 쓰기의 교수 내용은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어 유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휘나 구문 등에 대한 반복 학습을 묻는 문항에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수자 간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질문 부족이라는 점과 동일하게 학습자의 학습 태도와 관련된 문제로서 온라인 수업의 보다 나은 학습효과를 위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는 권고 되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그 밖에,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적인 면은 온라인 수업의 한계로 드러나 향후 온라인 수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왕구(2021)는 교육부가 지난 5월 대학생 94,803명에게 조사한 2학기 대면 수업 확대 관련 설문조사를 인용하여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대면 수업을 선호하는 비율이 높았다고 보도하면서 1년 반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들은 이런 변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 상호작용 약화, 학습 동기 유발의 어려움 등 비대면 강의의 원천적 한계를 뛰어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는 교수자들의 의견을 덧붙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역시, 학습자 간의 소통에 대한 태도와 인식은 저조하여 평균 2.7에 그쳐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낮다. 온라인 수업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LMS 상에 학습자들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나 SNS를 통한 단체 학습방 개설 등의 개선점을 제안하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 밖의, 학습자와 시스템 간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대부분 평균 4점 초반을 나타낸 반면, LMS 상의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 조치에 대하여는 긍정적 응답이 4점에 못 미쳤다.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태어나 어릴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인 Z 세대(네이버 지식백과, 2021)에게 온라인 수업을 위한 기본적 능력은 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다만, 학생들이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온라인 상에 접속하기 쉬운 편리성, 편의성, 시스템의 안정성 등이라는(김양희 외 2인, 2020; 임정완, 2021; 황요한 & 김창수, 2021) 점을 고려할 때, LMS 상 시스템 오류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학생 개인이 속해 있는 네트워크 불안정 환경에 대한 안정적인 온라인 수업을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교과의 성과와 관련하여 온라인으로 실시된 영어 읽기와 쓰기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의 정도를 알아보았다. 영어 읽기 수업과 쓰기 수업에 대한 다섯 가지의 문항에서 긍정적 반응이 모두 평균 4.2로 동일하였으나 본 연구는 온라인 수업이 동기와 흥미를 부여하고 적합한 방식이라는 면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반응에 주목하였다. 사실, 수업에의 동기와 흥미 부여는 대면 수업에서도 종종 제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높은 긍정적 인식과 태도가 실제 교과의 성과와 어떻게 연계되는가 하는 평가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그러나 대면하지 않고도 수업 내용이 전달되는 가능성의 확인, 그리고 언제든 어디에서든지 수강 가능한 방법적 편의성에 대한 만족을 온라인 수업의 만족으로 보아야 하는가는 교과의 목표를 생각해 보면 자명해진다. 코로나 19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부각된 뉴 노멀(New Normal)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지난 2년간의 대응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논의로 다시 한번 변화된 뉴 노멀로 정립될 단계에 와 있다.

참고문헌

교육부. (2020a). *원격수업 운영사례집*. 세종: 교육부.

교육부. (2020b).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개강 이후의 학사운영 현황*. Retrieved February 27,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9917&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김민정. (2021). 코로나로 학력 저하 사실로 확인,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국제신문,* Retrieved June 5,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key=20210602.99099000523

김양희, 신유선, 정영경. (2020). 비대면 온라인 영어수업 운영에 대한 영어과 학생 교사들의 인식 조사. *언어과학, 27*(4), 1-24.

김지원, 박영신, 김경이, 양길석. (2021). COVID-19에 따른 대학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와 학습자의 인식 및 경험 분석. *교육연구, 80*, 33-58.

김태웅. (2010). 온라인 토론 환경에서 교수자의 피드백 형태가 토론 참여도와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공학교육학회, 13*(6), 24-32.

김한주, 노석준, 유병민. (2015). 일반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 요인, 교수 실재감, 콘텐츠 품질이 학습 만족도 및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학습 몰입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종합연구, 13*(2), 171-194.

김현주. (2020). 외국인 학부생의 비대면 한국어 수업 경험에 대한 탐색: 줌(Zoom)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4), 1679-1692.

네이버 지식백과. (2021). *Z 세대*. Retrieved September 19,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sug.top&where=nexearch&query=z%EC%84%B8%EB%8C%80+%EB%9C%BB&oquery=mz+%EC%84%B8%EB%8C%80&tqi=hTvyiwprvmsssg2wuRZssssstPG-130292&acq=z+%EC%84%B8%EB%8C%80&acr=2&qdt=0

도재우. (2020). 면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애물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6*(2), 153-173.

민찬규, 김보경. (2006). 협동학습을 활용한 고등학교 영어 쓰기 지도 효과. *영어어문교육, 12*(4), 185-210.

박부남. (2021). 비대면 의사소통 영어 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인식: 비디오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 중심으로. *영어교육연구, 33*(2), 107-129.

서영일. (2021). 코로나 학력저하, 고교 상위권 학생도 피할 수 없었다. *TV 조선,* Retrieved October 12,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10/11/2021101190047.html

손혜숙, 전설아.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학 교육 탐색: 블렌디드 수업의 가능성 연구. *문화와 융합, 43*(2), 15-34.

신현준. (2021). 대학 수업 25% 대면 예정...추가 확대 검토해야. *YTN,* Retrieved October 6,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ytn.co.kr/_ln/0103_202110061634582914dptj

오재호. (2020). 코로나 19가 앞당긴 미래, 교육하는 시대에서 학습하는 시대로. *이슈& 진단*, 1-25.

이보경. (2020).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교양영어 수업의 학습자 반응에 관한 연구. *교양교육연구, 14*(4), 97-112.

이쌍철, 김정아. (2018). 학생의 온라인 수업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6*(2), 115-138.

이연주, 임경수. (2021).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학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사례연구. *교양교육연구, 15*(4), 217-231.

이왕구. (2021). 4학기째 캠퍼스 못 밟는 '코로나 학번'. "고립세대 될라". *한국일보,* Retrieved August 10,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80909580003054?did=NA

이혜정, 김태현. (2008). 이러닝 콘텐츠 제시 유형이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평생학습사회, 4*(1), 75-94.

임정완. (2021).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영어교육과 대학생들의 인식 연구. *영어어문교육, 27*(3), 109-128.

임정훈. (1998). 인터넷을 활용한 가상수업에서의 교수-학습 활동 및 교육 효과 연구. *교육공학연구, 14*(2), 103-136.

정향기. (2020). 코로나19 상황의 대학교육에 있어서 전면적 온라인 수업 실행 및 평가에 대한 학습자 만족도. *멀티미디어언어교육, 23*(3), 392-412.

정희정, 김애림, 주하나. (2020). 코로나 위기에서의 온라인수업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유형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1359-1381.

조은순, 남상조. (2011). 대학 이러닝에서 학습자의 자발성과 수업기능 활용, 학습 성공에 대한 이해도가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12), 969-975.

최윤정, 지난영. (2020). 비대면 영어 수업에서 상호작용과 수업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수업 방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3*(4), 233-253.

최정선, 권미경, 최은경. (2020).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의 인식 및 만족도 연구: D대학교 한국어 교육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17*(2), 135-168.

최형미, 이동국. (2020). COVID-19에 따른 중등 교사의 원격수업에 대한 경험 탐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6), 1047-1071.

한송이, 이가영. (2020). 실시간 온라인 수업에 대한 교수자 인식 연구. *문화와 융합, 42*(7), 395-418.

황요한, 김창수. (2021).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강의 인식 조사: 대학생의 만족도와 불안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29*(1), 71-91.

Hodges, C., Moore, S., Lockee, B., Trust, T., & Bond, A. (2020). The difference between emergency remote teaching and online learning. *Education Review(online) 27*. Retrieved April 30, 2021, from the World Wide Web: https://medicine.hofstra.edu/pdf/faculty/facdev/facde varticle. pdf

Irvin, C., & Park, S. M. (2021). An investigation of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interactions during remote courses caused by COVID-19.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7*(1), 67-93.

Kim, G. H., & Seong, M. H. (2021). The actual learning state and perceptions of general English learners in an online class at a Korean university. *Journal of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25*(1), 67-90.

LaBarbera, R.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perceived sense of connectedness to the instructor and satisfaction in online courses. *The Quarterly Review of Distance Education, 14*(4), 209-220.

Paechter, M., Maier, B., & Macher, D. (2010). Students' expectations of, and experiences in e-learning: Their relation to learning achievements and course satisfaction. *Computers & Education, 54*, 222-229.

Palmer, S. R., & Holt, D. M. (2009). Examining student satisfaction with wholly online learning. *Journal of Computer Assisted Learning, 25*, 101-113.

Picciano, A. G. (2002). Beyond student perceptions: Issues of interaction, presence and performance in an online course.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6*(1), 21-40.

Spreng, R. A., & Mackoy, R. D. (1996). An empirical examination of a model of perceived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Journal of Retailing, 72*(2), 201-214.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Tertiary

남은희(강사)
을지대학교
131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Email: hieuni@hanmail.net

성명희(교수)
을지대학교
1313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553
Email: seong.eulji.ac.kr

Received in October, 2021
Reviewed in November, 2021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2021